

그들이 함께 일하는 이유 - The New Co-Working Space (2018.9)

Maintheme

그들이 함께 일하는 이유

The New Co-Working Space

취재 최윤정

가족과 함께 하는 오피스, 언제든지 영화관으로 변신하는 오피스. 혼자라면 상상으로만 그칠 꿈의 공간이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실현되고 있다. 거부할 수 없는 물결이된 코워킹 스페이스 생태계에서 사용자의 니즈를 정확히 읽어낸 공간은 가까운 미래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한다.

바야흐로 코워킹 스페이스 전성시대다. 2015년 wework, FASTFIVE 등 선두주자가 이끌어 온 국내 코워킹 스페이스는 올해 들어 서울 시내에만 51곳으로 늘어나며 급속도로 팽창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처럼 심상치 않은 지각변동에 부동산 업계는 물론 여러 분야의 대기업 역시 공유 오피스를 연달아 공개하며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고자 노력한다. 대표적으로 한화생명의 드림플러스, LG서브윈의 FLAGONE, 신세계인터넷서널의 S.I LAB 등은 탄탄한 자본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저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세운다. 이미 코워킹 스페이스가 꾸준히 자리 잡은 해외의 경우 발전 속도는 더욱 빠르다. 더욱 세분화된 분야와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특색 있는 공간을 꾸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는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개념을 넘어 새로운 워크 스타일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하나로 다시 한 번 진화한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코워킹 스페이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지 편하고 효율적인 공간 그 이상의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 국내 안팎으로 주목받는 코워킹 스페이스는 각자의 영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프리랜서 등의 사용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유 오피스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새로운 오피스 문화를 추구하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다양한 면모를 통해 따로 또 함께를 추구하는 공유 공간의 미래를 짚어봤다.

The Time for Balance

빌딩블럭스

Design / SCAAA·최영환

Location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8-11 511타워

Area / 1,198㎡

Photograph / 맹민화



요즘 유행하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영역을 별개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하는 스타트업 혹은 창작자에게 일은 곧 삶이다. 이들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는 많은 좌석을 갖추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존 공간과 확연히 달라야 한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오피스에서의 일상은 딱딱한 책상에서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강남역 인근에 문을 연 빌딩블럭스는 일과 삶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라이프 스타일 공유 오피스를 표방한다. 빌딩블럭스를 기획한 김희영 대표는 여성 전용 오피스나 가족 친화형 오피스 등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에 최적화된 코워킹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그 고민의 결과물이 빌딩블럭스인 셈이다. 기존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볼 수 없었던 여성 전용 구역과 수유실, 샤워실을 구비했으며, 하반기에 키즈존 오픈을 앞두고 있다.

화사하고 감성적인 인테리어 역시 강점 중 하나다. 메인 플로어 1개 층과 오피스 플로어 2개 층까지 총 3층 규모를 갖춘 이곳은 화이트 컬러 베이스에 높은 천장과 탁 트인 통창 덕분에 산뜻한 느낌을 자아낸다. 방문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메인 플로어는 널찍한 오픈 스페이스에 리셉션, 라운지, 오픈 데스크, 미팅룸, 포토 스튜디오, 여성 전용 구역을 구비했다. 그레이 컬러를 주조 삼은 라운지는 선명한 블루 컬러 소파를 포인트로 두어 경쾌한 느낌을 주었으며,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의 플라워 슝 수림에서 진행한 플랜테리어로 생기를 불어넣었다. 곳곳에 브라스 소재 디스플레이

이 가구를 두어 패션 디자이너를 위한 쇼룸을 겸하도록 했다. 또한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오픈형 업무 공간은 등근 등받이가 돋보이는 벨벳 소재 의자를 배치함으로써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더한다. 한편 2개의 오피스 플로어는 1인실부터 6인실까지 다양한 프라이빗 오피스 40개와 여러 자재와 컬러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머티리얼 라이브러리, 워크숍 등을 마련해 편리한 업무를 돕는다. 프라이빗 오피스는 소음 차단 효과가 뛰어난 벽체를 사용하고, 눈이 편안한 LED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오랜 업무에도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배려했다. 또한 공용 공간은 우드 소재 가구와 파스텔 컬러를 조화롭게 적용해 한층 아늑하고 따스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